

다산포럼

김민환



의원들은 범죄 예방과 대처에 미온적이라고 유권자들한테 찍힐까봐 법안 친성을 주지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의견이 대립되는 지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반대파의 주장 밑바닥에 깔린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찬반 양쪽이 공유하는 가치를 차근차근 재확인해 나갔다. 그가 발의한 법안은 몇 주에 걸친 협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예는 그밖에도 많다.

오바마의 너구리를 상대방에 대한 시선에서 역연하게 드러난다. 그는 상원의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뽑힌 버락 오바마는 우리 개념으로 말하자면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그는 쿠데타를 졸업한 뒤 시카고의 빈민지역에서 한동안 공동체운동을 벌였다. 하버드 대 법과대학원을 마친 뒤에도 그는 한동안 인권변호사로 일했다.

그의 출신성분을 살펴보면 그가 시민운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케냐 출신의 가난한 유학생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주로 하와이에서 자랐으며 재학한 어머니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몇 년을 지냈다. 그의 가족이 모이면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듯이 여러 국적 소유자가 많아 마치 ‘미니 유엔’ 같다고 한다. 이런 그가 미국에서 얼마나 차별을 받고 서러움을 겪었을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그의 가치관은 ‘공감’

그러나 그의 사람됨됨이란 뜻밖이다. 그는 강하다기보다는 유연하다.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그의 저

서 ‘담대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에서 그가 밝힌 바지만, 그는 그의 가치관의 핵심을 ‘공감(共感)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항상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며 상대방의 눈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애쓴다는 것이다. 그는 역사자지

오바마한테서 배울 것

(易地思之)의 지혜를 터득한 정치인이다.

그는 그 책에서 역사자를 통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밝혔다. 일리노이 주 상원 의원이었을 때 그는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중대한 사건의 경우 심문 과정이니 자제 내용을 비디오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우선 주 감찰과 경찰이 완강하게 반대했다.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형제 폐지 쪽으로 여론이 쏠릴 것을 우려했다. 동

에 재선하여 백악관 골드룸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다. 물론 독대는 아니었다. 당 선자 전원을 초대한 자리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만난 부시에 대해 ‘호감이 가는 인물’이라고 책에 썼다. 부시 대통령이 기민하면서도 절도가 있고 솔직하다는 것이다. 부시를 보면 누구나 지방 대로변에서 자동차 대리점 운영하는 사람이나 뒤틀에서 석쇠에 고기를 굽는 이웃사람을 연상할 것이라며, 부시의 그런 풍모가 공화당의 두 차례에 걸친 선거의 승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반대논리 저변에 깔린 가치 가운데에서도 공감하는 비를 찾으려는 그의 습성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을 그의 다문화적인 사회적 배경에서 찾는다. 오바마 아버지의 부족은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다. 오바마는 흑백의 혼혈아 출신이며 아시아에서도 자랐다. 그런데도 그는 최고의 명문인 하버드 대 법과대학원을 나왔다. 이런 다원성이 사고의 다원화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역지사지(易地思之)’

그제 밤에 나는 TV토론을 시청했다. 여야 정치인이 한 치도 물러섬이 없이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며 자기주장만 강변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두 교수는 마치 두 정지인의 꼭두각시인 냥 해당 정파의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느라 아전인수(我田引水)와 곡학아세(曲學阿世)를 되풀이했다. 타협이 가능한지 대가 있을 법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강팍(剛復)한가? 단일민족이어서 그런 것이라는 궤변이 나올까 두렵다.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박영자



“아이고! 나를 무었 때문에 살려 놓았단다?” 이는 최근 큰 며느리와 딸에게 갖다주려고 집 마당에 마늘 일곱 점을 넣어놨는데, 누군가 집에 몰래 들어와 훔쳐갔다가 마취에서 깨어나 서럽게 우시던 여든넷의 고통 할머니의 한 섶인 푸념이다.

필자는 그동안 삶에 쫓겨 내 자신을 너무 볼보지 않고 인생을 살았었다. 최근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을 만큼 무릎 관절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

MRI(자기공명영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결과, 연골이 다닳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

켜보니 필자의 지난 삶도 그리 녹록치 만은 않았다는 생각에 웃음을 지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극심한 통증에서 회복될 즈음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병실은 꽤적하고 시원했다.

接著 더위 속에서 맛보는 시원한 여름나기는 물론 노동에서의 해방감은 필자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다. ‘화려한 휴가’를 즐기는 것 같았다. 병실에서 환한 미소와 함께 “잘 좋다”라고 중얼거리자 이를 본 간병인이 “병원에서 할 말이냐”고 편진을 쳤다. 잠시나마 행복했지만, 고통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자 이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화려한 휴가

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화순 전남 대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던 고통 할머니가 토해낸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이를 지켜본 필자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젊은이들의 부재 때문이었다. 특히 농사를 전직으로 알고 생활 농작물을 가꾸는데 전념해 온 이들에게 농작물을 자식과도 같다.

이들이 병실에 누워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다. 이들의 경우 조급 만 다쳐도 큰 부상으로 이어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젊은 사람과 달리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애써 가꿔온 농작물을 돌볼 사람은 거의 없다.

고통 할머니를 곁에서 지켜 본 필자의 마음도 그리 편치만은 않았다. 둘이

최근 농작물 절도범이 기습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곤 한다. 수확기를 맞아 고통 할머니처럼 시골에서 피땀으로 일궈온은 고주와 깨마늘, 콩 등 농작물을 도선생들이 훔쳐가고 있는 것이다. 수입 개방 등으로 그 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게 농촌지역의 절도 범이다.

개 도둑을 막기 위해 개 몸에 색을 칠하고 지역별로 농산물 겉포대에 색을 칠하고 연락처 등이 적힌 같은 색의 생산자 카드를 안에 넣어 도난당인지를 확인할 정도다. 땅밭에서 고생하며 수확한 농산물을 농민들에게 자식과 같은 존재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농산물을 훔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광주시지회장〉

정책자금 늘리고 금리 낮춰 축산농가 숨통 터 줘야

양돈업을 하는 농가들이 사료값 폭등으로 죽을 맛이라고 한다. ‘폐업 하느냐, 더 끌고 가다 파산하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을 정도로 암담하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료값도 최근 1년새 무려 60%나 폭등했다. 그렇다고 돼지고기값이 60% 올랐을까? 산지 양돈농가들은 이득이 없고 인상분은 거의 대부분 중간 유통업자들이 쟁인다 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 지원 정책 자금 금리를 선진국처럼 1%대로 내렸으면 한다. 이는 모든 축산농가들의 희망사항이다. 현재 축산농가 정책자금 금리는 3~6%

정도인데 선진국들은 1%다. 지금처럼 험난한 시기에 정책자금 금리를 내리는 게 그나마 축산농가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지원 대책일 것이다.

또 양돈 농가들은 국산 돈육 품질향상 지원금을 늘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1+등급에 대해서만 1마리당 1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전체 도축두수의 1%인 13만6천두 뿐이니 실제 양돈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 지원금은 1A 등급으로 확대해 양돈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인희·광주시 동구 대인동

보름 전 주말에 가족들을 대리고 필리핀 세부에 여행을 갔다.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마친 뒤 공항문을 나서자 마자 한국 주부 4명이 어깨에 뒤를 두르고 서서 우리를 반기며 홍보물을 나눠줬다.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겐거너 생각하며 홍보물을 받아드는 순간 당황했다. 홍보물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문구와 함께 ‘교회를 다니자’는 내용이었다.

마닐라에서 묵는 동안 한국인들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연락처 등이 적혀 있었다.

주부들의 어깨에는 ‘필리핀 OO 한인교회’라고 쓰여져 있었다.

이 지원금은 1A 등급으로 확대해 양돈 농

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민인희·광주시 동구 대인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오피니언]

시설

지자체 상습적 비리 근절대책 서둘러라

지방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 해마다 똑같은 형태의 불·탈법 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상급기관의 감사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도는 엊그제 3개 분야 23개 항목의 ‘자체감사 결과 반복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불·탈법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감사 자체 시행마다 지적사항마저 시정하지 않는 것은 주민을 업신여기는 끝이 아닐 수 없다.

불·탈법은 인사와 공사, 예산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 공무원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아 있는데도 표창·추천·대상자로 선정하는가 하면 계약업체나 보조사업·지원단체의 경비로 해외여행을 하기도 했다. 자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및 개인에게 부당하게 예산을

지방의 반발과 정치권의 정략적 접근 때문이다. 지방은 시·도가 없어지면 지방의 경제규모가 줄고 인사·예산의 중앙집중으로 중앙집권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선거구 문제 등 정치적 이해관계도 작용했다.

현행 행정체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일상 생활권과 맞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게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일인 만큼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실패했다. 1980~1990년대에 몇 차례 개편을 시도했고 17대 국회에선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구성되는 등 여야 합의 일로 직전에

지금이나 끝내 무산됐다.

지방의 반발과 정치권의 정략적 접근 때문이다. 지방은 시·도가 없어지면 지방의 경제규모가 줄고 인사·예산의 중앙집중으로 중앙집권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선거구 문제 등 정치적 이해관계도 작용했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국가경쟁력 강화, 주민인의 증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자생기반 확보 등도 겸토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개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행정체제를 개편해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경계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치우치거나 공무원의 자리 보전에 따른 반발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거쳐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無等鼓

지난해 말 겨우 올려놓은 1인당 국민 소득(GNI) 2만달러가 최근 다시 1만달러대로 내려앉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소득이 생활수준을 기준하는 통계인 만큼 액면 그대로라면 소득이 떨어져 국민의 삶의 품질도 낮아진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민소득 추락은 성장률 등 우리의 경제 내적인 역량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미국 달러 때문이다. 이는 의미이다.

최근 유엔의 싱크탱크인 유엔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한국개발 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제시한 ‘2017년 한국상황에 대한 예측 조사’ 결과, 앞으로 10년 정도 지난 2017년 우리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과 차이는 점이 두루 라도 반기운 미라.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10년 후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부정부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내놓았다. 불평등 예측이지만, 한국 경제, 사회의 지향점은 더욱 확연해진다.

그래서 영리한 경제학자들이 궁리해

/기호경제부정 kihh@kwangju.co.kr

국민소득의 진실

전망했다. 선진국들과 차이는 점이 두루 라도 반기운 미라.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10년 후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부정부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내놓았다. 불평등 예측이지만, 한국 경제, 사회의 지향점은 더욱 확연해진다.

▲이영애·광주시 북구 문홍동

보통 전 주말에 가족들을 대리고 필리핀 세부에 여행을 갔다.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마친 뒤 공항문을 나서자 마자 한국 주부 4명이 어깨에 뒤를 두르고 서서 우리를 반기며 홍보물을 나눠줬다.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겐거너 생각하며 홍보물을 받아드는 순간 당황했다. 홍보물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문구와 함께 ‘교회를 다니자’는 내용이었다.

마닐라에서 묵는 동안 한국인들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연락처 등이 적혀 있었다.

주부들의 어깨에는 ‘필리핀 OO 한인교회’라고 쓰여져 있었다.

이 지원금은 1A 등급으로 확대해 양돈 농

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민인희·광주시 동구 대인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